



## 인도 태평양을 위한 AUKUS-일본-한국 간 프레임워크

BY 자스민 알사이드

자스민 알사이드([jalsaid@mei.edu](mailto:jalsaid@mei.edu))는 미 해군 수상전 장교이자 2023년 젊은 외교 정책 전문가 (YPFP) 안보 및 국방 분야의 떠오르는 전문가로 꼽혔다. 본 논문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미 국방부나 해군,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PacNet시리즈는 미일한 3국 차세대 지도자 대화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9월 호주, 미국, 영국 간에 체결된 AUKUS 안보 협정은 기술 공유, 공급망 강화, 호주를 위한 핵 추진 재래식 무장 잠수함 인수를 촉진하여 인도 태평양의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 협정은 또한 AUKUS, 한국, 일본 간의 군사 협력을 갱신, 강화 및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경로를 마련한다.

미국 실무자들은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보호를 위해 중국의 주장이 항상 존재하는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연합 국방 노력에 참여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일본, 한국 및 AUKUS 간의 관계를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UKUS와 일본, 한국 간 협력은 공격자들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위협에 맞서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방어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새로운 협력 형태는 인도 태평양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통합 억제 태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인도 태평양 최고의 첨단 기술 인큐베이터를 개발할 수도 있다. 미 중부사령부 태스크포스 59와 마찬가지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 일본, 기타 AUKUS 회원들과 협력하여 협력국들이 보다 강력한 해양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기술을 테스트, 개발 및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훈련을 구축할 수 있다. 보다 강력한 해양 파트너십 구축은 해양 영역 인식

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 신조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지역에서 첨단 기술의 사용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다. 우선 AUKUS 협약에는 수중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스템, 상업 기술의 신속한 통합에 대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AI와 자율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전투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한미일 3자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에 명시된 병행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22년 11월 체결된 이 성명은 기술 리더십, 안보, 지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올해 G7을 주재함에 따라 일본은 경제적 회복에 대한 저항, 신형 기술의 홍보 및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 강화 등 여러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역 방어 노력은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조화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두에 있는 리더로서의 일본과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긴밀한 태세를 촉진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이러한 기술 플랫폼을 통합하고 배치하면 한국, 일본, AUKUS를 위한 새로운 방어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신속한 데이터 전송 및 정보 공유에 의존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내장하는 두 가지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두 가지 임무 모두 지역의 공격적인 행위자들을 억제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악의적 확산에 대한 우려 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 공동 프레임워크는 무기와 전쟁에 대한 논의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는 시기에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AUKUS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안보 협정이 지역 안보에 대한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AUKUS 안보 협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고 옹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세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제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이 품을 수 있는 정서를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2021년 자유민주당(자민당) 지도부 경선에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AUKUS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AUKUS 협정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2017년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 이후 취해진 제재와 같은 중국의 또 다른 경제 회복을 피하고 싶어한다. 또 다른 사이버 공격이나 미사일 발사 역시 중국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더욱 긴밀한 협력에 대

한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잠재적인 경제 보복의 위험성 등 부정적인 정서는 AUKUS를 통한 기술 중심 전력 배치에 대한 양국의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이들의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방 태세가 민주적 지위나 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조약 동맹국으로서 자신들이 어느 안보 틈에 끼어야 적합한지, 그들의 역량이 협정의 역량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자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다.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군대들이 글로벌 관계, 시장, 다자간 기관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위험한 현실로 다가온다. AUKUS 협정은 인도 태평양의 모든 행위자로부터 유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이 동맹과 국방 태세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첫째, 한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많은 서방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정서를 놓쳤지만 지난 2월 22일 한미일 3국 간 탄도미사일 훈련을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이 최근 발표한 국방전략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개발하고 킬 체인의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자위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2015년 법률까지 고려할 때 일본은 방위 태세 전환에 대해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관해 더 큰 확신이나 정보를 추구한다. 올해 6월 미일한 3국 확장억제 협의체의 창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동맹국은 통합 억제와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의 위치에 관한 대화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근간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그들 사이의 전력 균형이 아니라 기술 중심 방어 노력을 통해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 전략은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발전된 전투 기술, 국방비 지출 증가, 개선된 태세를 추구하려는 일본과 한국 내 증가하는 욕구를 활용해야 한다. GSOMIA 등 이들 국가 간에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많은 양자 간 파트너십과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국방과 안보를 둘러싼 기존 노력을 통합하고 합리화하는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UKUS-일본-한국 간의 협력은 이러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수 있다.

명확히 밝히자면 AUKUS-일본-한국 간 협력은 핵 기술 공유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 및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대신, AUKUS-일본-한국 관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첨단 신기술을 사용하여 지역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뭉친 행위자들의 보다 광범위하고 결속력 있는 참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참여와 협력은 AUKUS의 군사적 역량을 보완하고 소프트 파워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의 안정성을 기획하는 공유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이 바다에서 규칙 기반 규범을 계속해서 위협함에 따라 AUKUS-일본-한국 관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일 관계의 혼풍, AUKUS의 발전, 기술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부터의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AUKUS가 이런 종류의 발전을 이루려면 아직 수년이 남았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한 조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다른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앞으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어떻게 협력할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동맹 전망은 평시에는 크게 간과되기는 하지만 부담이 아닌 혜택의 도구다. 다자간 리더십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동맹의 방어적, 외교적, 역량적 우려를 인정하는 것이 AUKUS+2 관계의 성공에 핵심이 될 것이다.

*PacNet*의 논평과 답변은 해당 작성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언제나 환영하고 장려합니다.